[기획연재 6]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 1994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

인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택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계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의 징조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것과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둘째는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건이 모두 성취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1. 온세상 복음 전파는 가깝다

오늘날을 정보화시대라고 부른다. 통신망과 위성과 텔레비전 방송망 그리고 컴퓨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종합정보통신망을 이루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고 또 원하는 소식을 지구촌 어디에든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매체들과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망 등은 복음전파를 신속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선교의 문이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전파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 왔다고 하겠다.

2.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１８００년이나 전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한 민족이 회복되어 고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기적이 금세기에 일어났고 기적적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데렉 프린스는 A.D. ７０년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진에 의해서 물줄기를

http://file.cgntv.net

바꾼 강물과 같다고 비유했다. 강물의 대부분이 지진에 의해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버렸다. 거기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도 그 강의 흐름이 모두 멈춘 것으로 생각했다.

혹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로 접어 들면서 유대인 역사의 강은 세계사에 광활한 경지 속으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재현은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유대인의 역사가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형태는 시온주의 였다.

*** 출처 – 온누리신문**